

영국의 TV 드라마 산업 동향

주요 내용

1. 영국, TV 엔터테인먼트 포맷 산업의 메카

- 매년 수천만~수억 파운드 규모의 포맷 수출
- 드라마 약세, 드라마 수출보다는 포맷 수출을 통해 산업 활성화 모색

2. 2007년,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출 23억 파운드 기록

- 전년 대비 8% 감소
- 텔레비전 콘텐츠는 동 대비 23% 증가, 지속적 성장세 반영
- 국내 제작 TV 프로그램 중 53%의 완성본과 포맷을 수출

3. TV 드라마 관련 정책

- 법적 방송시간 등 최소 25%는 독립 프로덕션에 의해 제공되는 방송을 편성
- 방송시간의 70%, 황금 시간대의 90%는 재방이 아닌 첫 방송이어야
- 최소 90% 이상의 프로그램은 EU 또는 EEA 영역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영국은 TV 엔터테인먼트 포맷 산업의 메카로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영국의 방송사들은 수천만~수억 파운드 규모의 방송 포맷을 해외로 수출한다. 그러나 유독 드라마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해외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전 세계 드라마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은 미국 드라마이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TV 시청자들은 미국 드라마를 통해 미국의 문화와 미국식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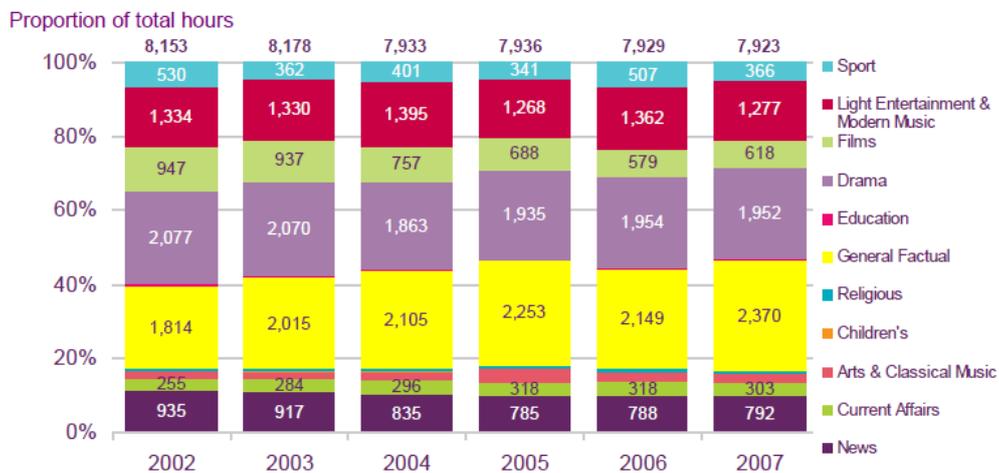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영국의 드라마 산업이 세계 드라마 산업의 중심부인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보기에 여전히 영국 드라마는 무언가 어눌한 듯 보이며, 중요한 장면에서 긴박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즌 1이 호지부지 마무리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7~2008년 동안 미국식으로 각색된 영국 드라마 <Life on Mars>(London의 독립제작사 Kudos 제작, 미국 ABC에서 방영)와 영국의 관광도시 블랙풀을 배경으로 한 <Viva Blackpool>을 각색한 <Viva Laughlin>(BBC에서 제작한 뮤지컬 형식의 드라마, 미국 CBS에서 방영) 등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영국 드라마를 그대로 수출하는 방법보다는 포맷 수출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 드라마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관련 정책, 그리고 주요 드라마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국 TV 드라마의 현주소

2007년, 영국의 영화와 TV 수출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영화와 TV 콘텐츠 수출은 전년 대비 8% 포인트 하락한 23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이는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던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콘텐츠만 놓고 보았을 때는 오히려 전년 대비 2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영국 텔레비전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영국은 2007년에 국내에서 제작된 TV 프로그램 중 무려 53%의 완성본과 프로그램 포맷을 수출하였다. 영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2개 중 하나는 해외로 수출한다는 의미이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르는 엔터테인먼트(버라이어티 쇼, 리얼타임 쇼 등) 장르였으며, 그 다음이 드라마(단막극, 미니시리즈, 시트콤 등) 장르였다.

아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3년까지만 해도 저녁 피크타임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장르는 바로 드라마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팩추얼 프로그램에 밀리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두 장르 간 간격이 꽤 벌어진 상황이다.



Source: Ofcom/Broadca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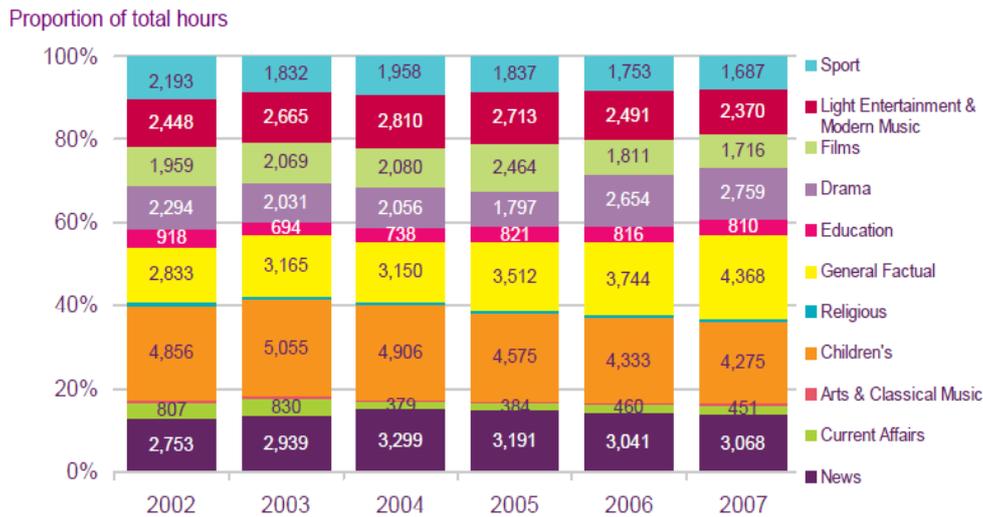
<그림 1> 영국 지상파 5개 채널의 장르별 방송 편성 (야간 피크타임)

이러한 피크타임대 드라마 방영 시간의 감소분은 비인기 시간대인 주간 시간대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특히 ITV1은 낮 시간 동안 인기 드라마를 재방영함으로써 주부들의 시청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BBC의 경우는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드라마 제작을 줄이면서 뉴스 제작을 늘려가는 추

세이다. 이것은 지역별 균형 정책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드라마 제작을 런던 이외의 지방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디지털 장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과도기적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라마 편성을 늘려갈 계획이며, 특히 고화질 HD 기술로 제작되는 드라마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TV 드라마 관련 정책

미디어 규제기구 오프콤(Ofcom)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드라마 제작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시행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오프콤의 법령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드라마 제작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지상파 방송 중 대표적인 BBC에 대한 오프콤의 관련 규정이다.



Source: Ofcom/Broadcasters

<그림 2> 영국 지상파 5개 채널의 장르별 방송 편성 (주간)

- 법적 방송 시간 중 최소 25% 이상은 독립 프로덕션에 의해 제공되는 방송을 편성해야 한다.
- 방송 시간의 70%, 황금 시간대의 90%는 재방송이 아닌 첫 방송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 산하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의 권장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 최소 90% 이상의 프로그램은 EU 혹은 EEA 영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또한 오프콤의 정책은 아니지만 각 방송국별 자체 규정에 따라 드라마 제작을 제한하기도 한다. 특히 BBC를 비롯한 지상파 공영방송들은 인종차별 금지 정책과 지역적 차별 금지 정책에 따라 이를 드라마에 그대로 반영하게끔 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인종적 다원성을 고려하여 소수인종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런던에 모든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런던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의 쿼터도 방송사별로 정하고 있다.¹⁾ 드라마 제작자들 역시 이러한 쿼터제를 귀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고른 지역에서 좋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발상은 1972년 처음 방영된 이후로 여전히 영국 최고의 인기 드라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Emmerdale>은 잉글랜드 북부의 웨스트 요크셔 에머데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제작되어 왔으며, ITV의 지역 네트워크 방송사와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보다 더 오래된 고전 드라마 <Coronation Street> 역시 잉글랜드 서북부의 맨체스터 지역 Salford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역 안배 정책으로 인해 영국의 드라마 산업 인프라는 전국에 걸쳐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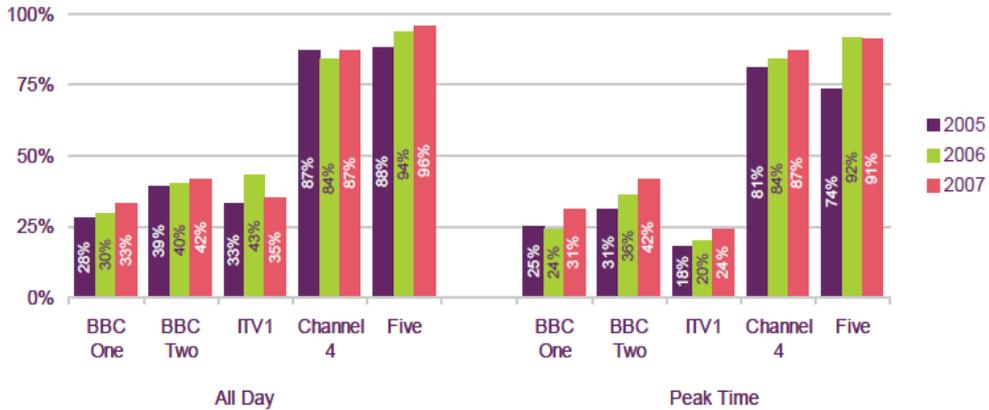
이러한 지역 안배 정책 못지않게 인력 인프라에 대한 안배 정책도 영국 드라마 산업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영국 드라마의 배역은 상당수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다. 제작 담당자가 드라마를 제작하기 전에 제작본부에 필요한 배역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제작자들이 제시한 배역을 선발하기 위해 합동으로 오디션을 열기도 한다. 일례로, 2001년 당시 BBC 드라마에 출연할 연기자를 선발하는 데 전국에서 총 1만 1,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BBC는 배역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투표 등 시청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드라마 배역을 뽑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 선발 과정에서부터 화제를 모아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연기력만 있으면 누구나 배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드라마에 대한 애정과 배우들의 실력에 대한 존중 역시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영국 드라마의 외주제작 현황

현재 영국의 지상파 5개 채널은 모두 30% 이상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TV1을 제외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의 외주제작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ITV1 역시도 피크타임대 편성 비율에서는 외주제작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모든 방송

1) 2008년 현재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지상파 방송사별 지역 할당 쿼터는 BBC 25%, ITV1 50%, Channel 4 30%, Five 10%이며, 제작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BBC 30%, ITV1 50%, Channel 4 30%, Five 10%이다.

사의 전략적 프로그램에서의 외주제작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Source: Ofcom/Broadcasters

<그림 3> 지상파 방송사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비율

영국의 독립제작사는 2008년 현재 2강 4중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출액의 차이일 뿐, 소규모 업체에서도 얼마든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독립제작사는 'IMG Media'와 'All3Media UK'이다. 이들의 연간 매출액을 합친 금액은 4억 2,000만 파운드, 이는 BBC의 연간 드라마 제작비보다 많은 액수이다. 또한 그룹 형태의 회사가 아닌 독자적인 회사로서 독립제작을 담당하는 회사 중에는 'Hit Entertainment'와 'Talkback Thames'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들은 각각 1억 4,300만 파운드와 1억 4,000만 파운드의 연매출액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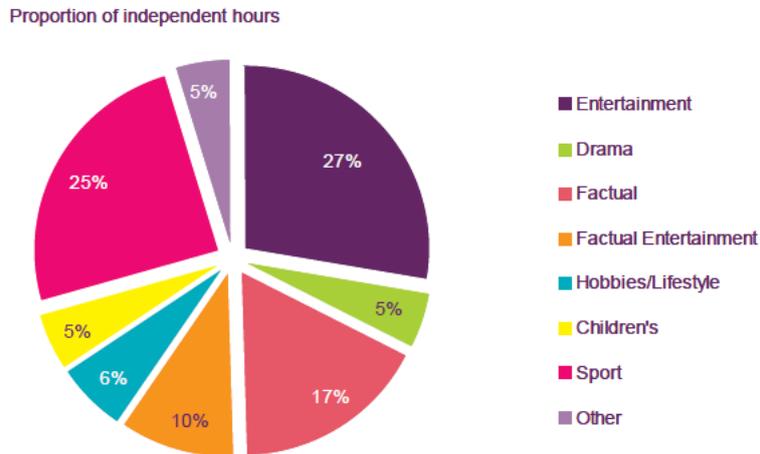
	Company	Revenue	Key shows
1	IMG Media	£221.7m	The One Show, Robin Hood, An Island Parish, The Catherine Tate Show
2	All3Media UK	£202.5m	Midsomer Murders, Formula One, Fifth Gear, 10 Years Younger, Richard & Judy
3	Endemol UK	£160.0m	Big Brother, Ready Steady Cook, Deal or No Deal, Brainteaser
4	Shine	£146.0m	Celebrity Masterchef, The Wright Stuff, Life On Mars, Spooks
5	Hit Entertainment	£142.7m	Bob The Builder, Project Build It, Barney & Friends, Wobblyland
6	Talkback Thames	£140.0m	Britain's Got Talent, The X-Factor, The Bill, Grand Designs
7	RDF Media Group	£99.3m	Wife Swap, Location, Location, Location, Faking It
8	Shed Media	£71.8m	Waterloo Road, Supemanny, Who Do You Think You Are?, New Tricks
9	Tinopolis	£66.0m	Question Time, The Government Inspector, Traffic Cops, Car Wars
10	DCD Media	£42.0m	House Price Challenge, Saturday Cooks, The Wind in the Willows

Source: Broadcast Indies Survey 2008

<표 1> 영국 10대 독립제작사 목록

<그림 3>은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영국 외주제작 시장에서의 드라마는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주제작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장르로,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에 반해 드라마와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는 외주제작 비율이 5%에 그쳤는데, 이는 드라마와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별 자체 제작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공영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국의 지상파 방송들은 전통적으로 드라마와 어린이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단지 자본의 형태로서의 투자뿐만 아니라 시간과 인력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BBC의 드라마 제작비는 연간 8,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2006년을 기준으로 MBC와 SBS의 연매출액과 맞먹는 액수이다.



Source: Ofcom/Broadcasters

<그림 4> 지상파 방송사들의 장르별 외주제작 편성 비율

영국 TV 드라마 현황

영국 드라마는 장르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드라마 흥행 여부가 주연배우의 인기에 좌우되고, 온통 멜로드라마 일색인 한국의 상황과는 분명 다른 점이다. 장르뿐만 아니라 소재도 다양하다. 정통 멜로물에서부터 중세를 배경으로 한 역사물, SF물, 스포츠물 등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몇몇 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닥터 후(Doctor Who)>

<닥터 후>는 BBC 텔레비전에서 1963년 11월 23일에 첫 방영된 이후 1989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26개의 시즌이 방영되었고, 1996년에 방영된 텔레비전 영화까지 8명의 배우가 주인공인 닥터로 출연하였다. 이후 장기간의 휴식기를 거친 뒤, 2005년 3월 26일 27번째 시즌, 즉 새 닥터 후 시리즈의 첫 번째 시즌이 시작되었다. 9대 닥터는 크리스토퍼 에클레스톤이 담당하였다. 이듬해 2006년에 이어진 두 번째 시즌부터 데이비드 태넌트가 10대 닥터를 담당하고 있다. 역대 닥터를 맡았던 배우들은 당대 영국 최고의 인기 스타로 주목을 받아왔다.

<닥터 후> 시리즈는 ‘닥터(The Doctor)’라고 알려진 신비한 시간 여행자가 파란색 경찰 비상전화 모양으로 생긴 TARDIS라 불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하면서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SF물이다. 2008년 6월에 시즌 4가 마무리되었고, 2009년에는 시즌 4의 스페셜 에피소드만을 방영할 예정이며, 2010년에 새로운 시즌을

방영할 계획이다. <닥터 후> 시리즈는 기네스북이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영되고 있는 TV 드라마 시리즈이자 영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시즌 7~18 중 일부가 <후 박사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1977년부터 1981년경까지 동양방송과 KBS를 통해 방영된 바 있을 정도로 일찌감치 소개되었다. 최근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새로운 시즌을 재방영하고 있다 .

<스킨스(Skins)>

영국의 지상파 방송 Channel 4에서 방영 중인 청소년 성장 드라마 <스킨스>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청소년 드라마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남서부 도시 브리스톨에 사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과 방황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고뇌를 다룬 드라마로, 대마초와 섹스·거식증·스토킹·낙태 등의 민감한 소재를 통해 외롭고 혼돈에 빠진 영국 10대들의 정서를 예리하게 끄집어낸 점과 감각적인 음악과 실험적인 편집으로 호평을 받으며 한국에도 영국 드라마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브리스톨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 만큼 해당 지역에서 열린 공개 오디션을 통해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을 과감히 캐스팅함으로써 초기부터 영국 드라마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드라마를 통해 한나 머레이(Hannah Murray)나 미치 휴어(Mitchell Scott Hewer) 등은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코러네이션 스트리트(Coronation Street)>

몇 년째 영국 부동의 시청률 1위 드라마인 <코러네이션 스트리트>는 ITV1의 간판 드라마이자(영국에서는 Soap Opera 장르로 분류) 영국 드라마의 자존심으로 불리고 있다. 1960년 12월 당시 맨체스터의 그라나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50여 년간 영국 최고 인기 드라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전히 맨체스터의 그라나다 텔레비전에서 제작하고 있지만, 배급 및 방영권은 ITV 프랜차이즈가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되었다. <코러네이션 스트리트>는 한국의 <전원일기>와 유사한 드라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맨체스터 외곽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나이·계급·배경 등이 매우 다양하다. 캐나다와 뉴질랜드·호주 등 영연방 국가에서 인기가 높으며, 캐나다의 CBC에서 방영하는 <코러네이션 스트리트>를 미국에서 보기 위해 불법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는 가정이 급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고 있다.

맺으며

영국의 텔레비전 방송 콘텐츠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를 비롯한 텔레비전 콘텐츠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영국 방송국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 과거 초창기 텔레비전의 Soap Opera의 전통에서부터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 장르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영국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영국 드라마의 인기 뒤에는 정책적 지원과 외주제작사들의 자체 경쟁력 개발, 그리고 지역, 소재, 등장인물 등의 다양성 확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 최고 권위의 '런던 드라마 스쿨'과 같은 전문 교육기관은 드라마에 적합한 배우와 제작자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가진 작가들도 양성하고 있어, 영국 드라마의 다양성과 신선함을 유지시킨다. 일부 스타 작가의 작품과 톱클래스 배우의 출연 여부, 그리고 출생의 비밀과 3각 4각으로 엮이는 진부한 사랑 이야기가 대다수 인기 드라마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장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동안 영국의 드라마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핵심 화두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 참조 :

- Ofcom 「The Communications Market 2008」, 2008. 8.
- George W. Brandt 「British Television Drama in the 1980s」, 1993
- www.bbc.co.uk
- www.itv.com
- www.channel4.com

- 작성 : 주재원(영국 리즈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mediakorea@hotmail.com)